

2010 새해에는

정중순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농산물 제값에 팔수있게 유통망 확충”

“광주 농가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특산물의 유통망 확충과 판로 개척에 힘을 쏟겠습니다.” 정중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 본부장은 25일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가지, 토마토, 풋고추, 애호박 등 질 좋은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올해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농협 유통망을 활발하게 가동할 방침이다. 광주, 남광주, 서광주 농협을 비롯한 농협 하나로 마트



이를 위해 광주연합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쌀 가공·처리 시설을 확충해 미질관리와 홍보에 주력한다. 또 학교 급식사업, 도·소매 사업 등 쌀 소비처 확보 사업도 병행한다. 그는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도농 복합도시인 광주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업과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8천여 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그 액수를 1천여 원 늘려 9천여 원으로 확대해 지역 기업은 물론 금융소외자들을 적극 발굴, 지원하자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 본부장은 “윤리 중심의 정도경영, 조직 인화,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이 광주 지역 본부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변화와 혁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농협이 그 흐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영방침은 농협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체득한 자신의 철학이기도 하다.

그는 광주 본부 산하 14개 조합 가운데 올해 모두 9개 농협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것과 관련, “2010년을 공명선거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정 본부장은 “농협이 그동안 불법·혼탁 선거로 오명을 쓴 만큼 이제는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거듭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권자인 농업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쌀 ‘빛찬들’전국 브랜드로 금융소의 농업인에 자금 지원

에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지지 않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현재 수완지구에 건립 중인 광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오는 10월 개장하면 광주는 물론 전남지역 농산물까지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정 본부장은 “빠어난 미질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광주지역 쌀 ‘빛찬들’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예금금리 사실상 ‘제로’

작년 3%대... 사상 최저치

지난해 저축성예금 금리가 3%대 초반으로 주저앉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 수준이다. 따라서 예금이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적지않

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순수저축성예금의 평균금리는 연 3.19%로 전년의 5.67%보다 2.48%포인트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1~11월 기준 순수저축성예금의 평

균 금리는 ▲1998년 13.84% ▲2000년 7.12% ▲2002년 4.71% ▲2004년 3.78% ▲2006년 4.34% 등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도 금리는 피크였던 1998년의 23%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도 평균인 3%대 초반의 금리는 과거에는 나올 수 없었던 수치인 만큼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작년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5%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4.72%보다 1.97%포인트 하락했다.



백화점 새해 첫 세일 ‘짹짹’

한파 덕에 ‘반짝 특수’...작년대비 8~10% 신장

광주 지역 백화점들이 기습한과 덕분에 신년 바겐세일에서 ‘반짝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지난 8일~24일 까지 실시한 할인판매액 집계 결과 지난해 신년세일 대비 매출이 8% 신장됐다. 특히 감추워 영향으로 모피 의

류, 피혁 제품, 패딩 코트 품목은 재고가 바닥날 정도로 수요가 폭증했다. 신사복은 11% 신장됐고 겨울 산행객 증가로 아웃도어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장르도 13% 성장했다. 잡화부문도 25%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대비 10%의 신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모피 45%,

부츠 22%, 명품 38% 증가율을 보였다. 남·녀 의류는 각각 11%, 14% 매출이 상승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의류 판매 호조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현대백화점 본점은 이날 “광주를 포함한 현대백화점 11개 점포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원산지 둔갑 꼼짜마!

광주 북구청 농축산유통팀 직원들이 관내 식육점을 대상으로 25일 축산물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설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쇠고기 이력표시제와 원산지표시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얼굴

“공기업 선진화 대표모델 만들 것”

김성운 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자기혁신과 봉사정신으로 LH가 공기업 선진화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일 취임한 김성운(53)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

부장은 “지난해 10월 토공과 주공이 합쳐져 통합공사로 출범했지만 사실상 올해가 첫 해”라면서 “공기업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목표 달성과 화합이 중요하다”며 “당당하고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본부로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담양 출신인 김 본부장은 광주고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3년 주공에 입사해 임대계획처 팀장, 주거복지처장, LH 주택계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travel packages, including details on '프리미엄 제주여행 패키지' and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Advertisement for a construction or renovation service, highlighting '첨단 구조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 and listing various services.